

5월 광주는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염원과 희망을 담은 리본이 나부끼고 광주 곳곳에서는 5·18 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33주년을 맞는 올해 5·18 민중항쟁은 문화·예술 행사가 그 시작을 알리고,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민중미술·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 광주를 알린다



홍성담 작 '오월-27-대동세상'

1980년대 광주민중미술전·오월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11일 '오월창작가요제'… 18일 5180명 오카리나 선율 '시민마당'

■ 5·18 민중항쟁 33주년 문화·예술 행사

행사명	시간	장소
1980년대 광주민중미술	1일~7월 21일(8일 개막)	시립미술관 1.2전시실
전국 오월 창작 가요제	11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대운동장 특설무대
구묘역 설치전	13일	
민정전	13~28일	민주묘지 입구 및 굴다리
오월전	16~22일	시립 미술 분관(구 동구청 2층)
국단 토박이 '마중'	17~18일 오후 4시	민들레 소극장
명월동 구묘역 작은음악회	18일 오전 11시~밤 10시	
5·18시민마당 '오월의 노래'	18일 오후 10시	금남로 및 특설무대
광주인권상 수상 축하 음악회	18일 오후 7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오월 평화로 날다	19~23일	옛 전남도청 앞
양동 한마음 축제	22일 오후 2시	양동시장 일원

◇민중미술로 만나는 5·18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지난 1일부터 민주·인권·평화전 '오월-1980년대 광주민중미술'이 열리고 있다. 7월 2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한국민중미술운동이 촉발된 1980년 5·18 민중항쟁 이후 10년간의 광주·전남지역 민중미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다.

80년 5월 광주의 참담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담은 작품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작가들의 의도가 반영된 작품들이 전시된다. 강연균, 신경호, 홍성담, 진경우, 박광수 작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를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5월 광주를 알리며 한국의 민중미술을 이끌어왔다.

설치하고, 17일 금남로 일원에서는 5·18 관련 전시행사를 연다. 광주·전남작가회 의도 오월문화제를 열고 1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마갤러리와 묘역에서 '육필 시화'를 전시한다.

◇음악으로 만나는 5·18

전남대에서는 '오월의 노래꽃'이 활짝 핀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노래꽃 피는 오월'을 주제로 '페스티벌 오! 광주-오월창작가요제'를 연다.

서울밴드는 '어느새'로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표현하고, 부산 여성듀오 달콤씁쓸한은 '달콤씁쓸한'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풋풋하게 노래한다. 에이 트리오(A trio)는 '소녀의 이야기', AnaloGroove는 '오월의 기억', 펑크 밴드 유크파이터는 '과정은 위법이나 법은 유효하다' 등의 곡으로 광주와 5·18을 색다른 감각과 내용으로 해석해 시대정신을 전달한다.

가수 이승환과 악동밴드 슈퍼키드의 축하공연도 준비돼 있다.

17일 오후 6시에는 금남로 일원에서 광주 풍물배들이 5·18 영령을 추모하고, 18일에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5·18 구묘역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6회 망월동 구묘역 작은음악회'를 진행한다.

'입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55)씨도 18일 광주에서 음악회를 연다. 그는 18일 오후 7시 5·18 기념재단에서 열리는 '5·18 인권상 시상식'에서 지난 2010년 5·18 광주민중항쟁 30돐을 기념해 제작한 앨범 '입을 위한 행진곡'에 실

린 곡들을 김원중, 임지훈씨 등과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금남로 특설무대에서는 5·18시민마당 '오월의 노래' 행사가 열려, 5180명이 연주하는 오카리나 선율과 나무합창단의 노래가 금남로에 울려 퍼지게 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동행'

임종두 개인전, 13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

압도적으로 크고 풍성한 여인의 머리카락이 시선을 이끈다. 여인은 머리를 꽂으로 우아하게 장식하고 있다. 머리에서는 새가 날개를 펴고, 물고기가 헤엄친다. 활짝 핀 꽃이 얼굴을 내밀기도 한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여인은 진한 오방색의 여백에 갇힌 것 같 같다.

아트타운갤러리는 13일까지 임종두 작가를 초대해 '동행'전을 연다. 광주 출신으로 중앙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임씨의 5년만의 광주 나들이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2000년 이후부터 작업해 오고 있는 '동행'(同行), '화화'(花花), '소천대천'(小天大天), '숲' 연작 등을 선보인다.

임씨는 장지 위에 석채와 수정가루 등을 덧칠하는 기법으로 작품에 색을 입혀, 작품의 정직하고 철학적인 깊이를 더한다. 작품의 중심이 되는 색은 오방색으로, 붉어붉은 색으로 채색된 여인의 얼굴이 주변 색과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62-232-714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승환

호남예술제 성악 입상자(중·고등부)

◇ 심사위원	7 일가나(광주중앙여 2)
정애리(전남대 교수)	▲ 음상
김용진(전주대 교수)	10 박찬미(광주예술 1)
박미애(광주대 교수)	11 이소정(동아여자 1)
박형하(광신대 교수)	19 임하은(수완 2)
김철웅(목포대 교수)	20 이승은(전주예술 2)
▲ 동상	2 김재나(광주예술 1)
◇ 중등부 1, 2학년	6 이주은(광주예술 2)
▲ 금상	8 정윤화(전남예술 2)
1 박소정(광주동명 1)	14 박성지(광주예술 2)
▲ 음상	15 최하은(설레시오여 2)
3 김사랑(용두 1)	22 나규현(광주예술 2)
▲ 동상	25 류수인(광주예술 2)
5 김다빈(정광 1)	◇ 고등부 3학년
◇ 중등부 3학년	▲ 최고상
▲ 최고상	7 고은서(봉산 3)
7 고은서(봉산 3)	▲ 금상
▲ 음상	14 노유빈(신가 3)
14 노유빈(신가 3)	▲ 음상
▲ 음상	29 장예린(광주예술 3)
6 김어진(살레시오 3)	▲ 음상
▲ 동상	39 박정인(전주예술 3)
9 강소은(나주 3)	43 윤시온(정광 3)
◇ 고등부 1, 2학년	▲ 동상
▲ 최고상	28 한솔(광주경신여 3)
27 서현선(광주예술 2)	30 장인영(목포정명여 3)
▲ 음상	35 최서연(상일여자 3)
3 류건우(광주승일 2)	40 장현진(장덕 3)
	46 최효리(첨단 3)

'피터와 늑대' 아이들에 감성 선물

양상불 루미나시아의 가족음악회, 오늘 광주문화회관

작한 동영상도 함께 상영돼 듣는 즐거움과 함께 보는 즐거움도 더한다.

또 다른 연주곡인 세속 칸타타 '일상'은 전남대 정현수 교수 작품이다. 이효영의 시 '숨쉬기', '페스토랑에서', '다반

사' 등의 감성이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등이 어우러진 실내악 곡으로 변신했다.

그밖에 올해로 탄생 110주년을 맞은 러시아 작곡가 히차투리안의 '바이올린

과 피아노 클라리넷을 위한 트리오'가 연주된다.

출연진은 추희명·김기보·한선미·양새미·문경진·주민혁씨 등이다.

한편 루미나시아 양상불은 6분 내외

실내악곡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짧은 작곡가 작품도 공모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2인 이상 가족은 5000원. 문의 062-530-3045.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지하 1,2층 할인매장 1,2 이태리 가구 3층 던롭침대 4,5층 모던, 혼수가구

NAVER

홈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홈스페이스 가구빌딩

SPACE
스페이스 1899-0240